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여자 대학생에 대한 부성 콤플렉스 관점에서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ther Complex for a Female College Student Raised in a Wife-battering Family

심희옥(Hee-og Si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how a female college student from a wife-battering family overcame her negative father complex and found her femininity through sandplay therapy. The client wanted to have good relationships with people as a result of the therapy. Thirty-one therapy sessions were held. The initial phase of therapy included 1-7 sessions, the intermediate phase included 8-27 sessions, and the final phase included 28-31 sessions. The client expressed her empty heart, frozen femininity and potential to work that was blocked in terms of her internal work as well as in her ability to have relationships in the first phase of therapy. During the middle phase of therapy she pursued her real and authentic self by meeting her shadow and acknowledging the different viewpoints of others. In the final phase of therapy she welcomed a new world with determination of what she would do after graduation in a real life. Through sandplay therapy in a free and protected space, the client overcame her negative father complex and found her natural femininity.

▲주제어(Key Words) : 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 폭력가정(wife-battering family), 부정적인 부성 콤플렉스(negative father complex), 여성성(femininity)

I. 서론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J. Choi & H. Kim, 2011).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보인다. 예를 들어, 폭력가정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우울이나 불안이 높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며(H. Chang, 2003; J. Choi & H. Kim, 2011; S.

Hong & H. Kim, 2005; Y. Kim & I. Park, 2000; H. Shin, 2000), 공격성과 비행행동 등으로 학교 부적응 및 대인관계 문제를 가진다(M. Cho, 2012; J. Kim, H. Cho, & H. Yang, 2003; J. Kim, H. Kim, & H. Yang, 2006; H. Kim et al., 2007; S. Lee, 2006). 자녀에게 행해지는 가정폭력은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과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경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폭력가정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제한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가정 자녀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사회적인 어

* Corresponding Author : Hee-og S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558 Daehakro, Kunsan 573-701, Korea, Tel: +82-63-469-4624, E-mail: simh@kunsan.ac.kr

려움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과는 달리 이런 상황에 처한 자녀의 내면세계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런 접근은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이들의 정신역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Kast(1997)는 분석심리학적으로 집단무의식에 의해 인간의 경험 세계를 초월하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경향성으로 콤플렉스가 생기는 부분과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생길 수 있는 긍정과 부정적인 콤플렉스를 설명하고 있다. 콤플렉스는 응축된 경험과 공상에서 형성된 기억의 배열로 성격의 정서적인 핵이다. 콤플렉스는 타인, 삶, 세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우리의 관심사를 결정한다. 아동기 동안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 주의, 관심을 받고 사랑으로 길러지면 긍정적인 모성 콤플렉스, 긍정적인 부성 콤플렉스를 갖게 된다. 아동은 자신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헌신적인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돌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모성 콤플렉스, 부정적인 부성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부모와의 콤플렉스는 한 개인의 기본과 분위기를 좌우하고 그 사람의 생애 내내 발달적인 요구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Jung 역시 콤플렉스는 외상경험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O'Conner & Braverman, 2011). 그러나 우리의 콤플렉스들은 단순히 부모나 형제자매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부성 콤플렉스는 외부의 아버지와 관계를 고려하기보다는 그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부성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Kast, 1997). Jung은 외부의 개인적인 부모와 내면의 부모상을 구분하여 내면의 부모상에 의하여 외부의 부모가 전혀 다르게 경험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Y. Lee, 2010).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서 형성된 부모상을 외부의 부모에게 투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의 자녀는 이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한 특유의 부성상과 부성 콤플렉스를 가질 수 있다.

Y. Lee(2010)는 성인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는 아동기의 부성 원형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도 한다. 초기 아동기 여아의 경우, 선제하는 남녀 대극 쌍의 원형에 기초하여 남성의 부분에 부성상이 원형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자아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러한 원형적 부성상과 분리하여 가능한 한 원형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아를 부성 원형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은 또한 부성상이 원형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소개인적인 내용을 투사하여 그들의 전적인 전능함을 경험하다가, 성장해가면서 차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면서 투사를 거

두어들이게 되고, 마침내는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초기 아동기의 부성상과 제대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의 경우, 사춘기 이후에 아니무스가 아니라, 부성상이 아니무스의 자리를 대신하여 원형적 특성을 갖는 부성상이 사춘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Y. Lee, 2010).

어린 시절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딸이 자기 내면의 남성적인 측면하고 관계 맺는 방식과 딸의 여성성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 속에서 실제로 남성들과 관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K. Kim, 2009). 또한 여성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소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써 부성 콤플렉스는 딸의 에로스 영역에 문제를 일으켜 딸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갖는다(K. Kim, 2009).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런 느낌과 충동을 억압하게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K. Kim, 2009).

또한 부성 콤플렉스는 여성이 인격 형성에 있어서 외부 세상에 보여지는 측면인 페르조나를 강조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성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여성이 페르조나와 자신을 동일시 할 때, 여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집단적 이상과 가치관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여성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웅과도 같은 남성적 인격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한다(K. Kim, 2009). 그리고 부성 콤플렉스를 지닌 여성은 타인의 비난에 쉽게 상처받는 성향이 있어 잘 가꾸어진 페르조나 속에 갇혀 고통 받고 있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 소녀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성 콤플렉스를 지닌 여성은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소외되어 내면의 그림자나 아니무스에 의해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다(K. Kim, 2009).

한편, 부성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이 보이는 이성관계 양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의 대인관계 특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Y. Lee, 2010). 첫째, 부성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은 모성상과의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성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는 부성상에 의하여 자신의 여성성이 전적으로 위축되거나 부정되어 있다. 이들은 다른 여성들과 편안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여성들과의 관계보다 남성들과 더 자연스럽고 친밀한 유대감을 갖는데 이는 남성들과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여성성이라 함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때 드러나는 자기다움과 관련된 것이다(Y. Lee, 2010).

Y. Lee(2010)는 부성 콤플렉스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성상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자신의 여성성은 물론이고 개별 인격 전체가 희생될 수 있다고 하며, 부정적인 부성 콤플렉스를 설명하는데 한국 민담 <바리공주>를 예로 들며, 부정적인 부성상을 갖게 된 여성은 집단무의식에 동참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소외된 의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이런 여성은 주변 환경이 자신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의식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기 어렵다. 또한 이런 여성은 모성상의 지지도 얻을 수 없어 자신의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개인과 사회적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본성대로 생활하지 못하며 언제나 삶을 전쟁터로 여기고 안주하지 못하여 평생을 투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지닌 여성은 도저히 뭔가를 잘 해낼 수 없다거나, 결코 적절한 여성이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 지닐 수 있고(Kast, 1997), 부정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종종 자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Y. Lee, 2010). 이런 고통스런 삶의 여정은 이런 여성의 여성성의 분화를 위한 것일 수 있다(Y. Lee, 2010). 이처럼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이 의식의 삶을 잘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소외될 수 있지만 그러한 소외가 오히려 부정상이 지배하는 세계와 진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정상을 부정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철저한 소외나 고립은 한 개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라는 내적 요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Y. Lee, 2010).

다시 말해,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지닌 여성은 아버지로 표상되는 부정적 아니무스 때문에 창조적인 가능성을 타고 났지만 이를 실현시키지 못해 정신 에너지가 퇴행하며 우울이나 무력감에 시달리는데, 여성들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삶에 몰두하기 보다는 자신의 무의식에 들어가 무의식의 불분명한 정감(affects)이나 동기들을 분화시켜야 한다(S. Kim, 2001b). 이런 분화과정을 거쳐 그들의 내면은 자아-의식이 강화되고 새로운 창조성이 생기게 된다(S. Kim, 2001b).

모래놀이치료는 Kalf(2003)에 의해 심층심리학인 Jung의 분석심리학 개념이 접목된 심리치료법이다. 이는 모래상자에 소품들을 가지고 정신 내면의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인간의 콤플렉스 같은 무의식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이다(Hoeberichts, 2003). 모래놀이는 정신의 좀더 깊고 초기 수준의 것에 접근하게 해 주어 내담자의 외상, 관계문제, 개인의 성장, 자기(Self)와의 통합과 변형 같은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다룰 수 있다(Boik & Goodwin, 2000; H. Sim, 2012). 모래놀이과정을 통해 자아가 발달할 뿐 아니라 사회성이 발달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Y. Kim, 1996; H. Sim, 2011). 이런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기치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경감시키고 통합하여 심리적으로 전체적인 개인이 되는 개성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라는 무의식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 무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될 수 있는 모래놀이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신혼 때부터 폭력을 행사한 가정에서 자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아버지의 폭력을 알게 된 치료시작 당시 대학교 3학년생인 여학생의 모래놀이치료 사례를 탐색하였다. 내담자는 어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편해지면 좋겠다며 심리치료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의 내담자가 경험한 가정폭력 같은 상황은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형성시킬 수 있다. 내담자가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내담자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황 외에 Jung을 비롯한 분석심리학 문헌에서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지닌 사람의 특성을 내담자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가 타인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인데 이는 부정적인 부정상의 지배하에 있는 여성이 겪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본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여 내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모래놀이치료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 위축되고 부정되었던 여성성이 회복되고 대인관계가 보다 원만해지는 것을 치료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담자의 심리검사,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의 언어적인 표현과 모래상자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폭력가정 자녀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내담자 연령의 폭력가정 자녀를 모래놀이로 치료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이런 상황의 내담자를 치료해 모래놀이치료를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심리학과 모래놀이치료 문헌과의 접목과 해석을 통해 치료과정에서 펼쳐지는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라는 치료 주제와 관련된 내담자 내면의 변화 과정을 학문적으로 탐색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만 21세의 대학교 3학년생인 내담자의 가족은 조모, 부모, 2세 터울의 언니와 만 9세의 남동생으로 이들은 내담자가 다니는 대학과는 거리가 먼 시골에서 생활한다. 첫째가 딸인데 둘째도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고 조모는 며느리인 내담자의 어머니에게 낙태시키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이를 절대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아버지는 신혼 때부터 음주와 폭력을 일삼았는데 내담자는 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알게 된다. 내담자는 어릴 때부터 평안하지 못했던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나 어디서나 어른스럽고 착한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이 정도면 착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내담자는 부모님께서는 매우 착하고 든든하며 믿을만한 존재이다. 그러나 내담자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자신의 모습이 진정한 자기 모습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이 더 이상 착하거나 어른스럽거나 온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는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 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냥 밉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기도 하다. 이럴 때면 이런 정신적인 혼란이 다 어릴 때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아버지가 많이 좋아졌으나 내담자는 아버지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

2. 심리검사

사전과 사후 심리검사로 먼저, 내담자의 환경에 대한 적응적인 태도와 무의식적인 감정과 갈등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투사기법의 그림검사인 집-나무-사람(House-Tree-Person, HTP)을 실시하였다. 둘째, 직접 답하기 어려운 내용의 답을 통해 내담자의 감정, 태도, 동기와 긴장 등을 탐색할 수 있는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가정과 학교에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탐색할 수 있는 투사기법의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와 동적학교화(Kinetic School Drawing, KSD) 그림검사를 실시하였다.

3. 사례의 개념화

내담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신혼 시기부터 음주와 더불어 폭력을 행한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알게 된다. 이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내담자는 착한 둘째 딸로 부모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생활해 온다. 그러나 이제 대학생으로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에 의문을 갖는다. 겉으로 보여지는 착한 모습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은 내담자가 지나치게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내담자는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과민하고 방어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한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에게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다.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인 관계 맺는 일은 여성성의 영역이다. 이런 여성성의 문제는 부정 콤플렉스에 기원을 둘 수 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내담자는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능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연스런 여성성은 거부되고 억압된 것으로 사료된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인한 부정적인 경험, 이로 인해 내재된 두려움, 불안 및 콤플

렉스 부분은 무의식을 다룰 수 있는 심리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4. 치료절차

내담자에게 2009년 11월 13일~2010년 12월 7일까지 겨울과 여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한번 1시간씩 총 31회기의 모래놀이치료가 행해졌다.

5.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내담자가 만든 모래상자 자체가 주 연구도구인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내담자의 치료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내담자가 만든 모래상자에 대한 전문가의 수퍼비전 내용을 활용하였다. 모래놀이치료 수퍼비전은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에 초대된 정신과 의사로 국제융분석가이면서 국제모래놀이치료학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외국 수퍼바이저에게 받았다. 수퍼바이저의 지도 감독은 내담자의 성장배경, 심리검사 및 모래상자를 토대로 내담자의 여성성 문제 같은 치료 이슈의 도출 및 이런 관점에서의 모래상자에 대한 분석 및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III. 연구결과

1. 사전 심리검사

사전 HTP, KFD와 KSD는 <Appendix 1>에 제시한다. 사전 심리검사로 첫째, HTP의 집을 그리면서 “별로 그렇게 없다.”며 마름모형의 지붕, 양쪽으로 묶여진 커튼, 창문과 문고리가 없는 문을 그린다. 그냥 아무데나 세워져 있는 집으로 할아버지와 아들 둘만 산다. 분위기가 어두울 것 같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사 가면 누가 살 것 같은데 그 때는 신혼 부부가 2살짜리 여자아이와 살 것 같다. 나무는 30세의 사과나무로 튼튼하다. 주변에 잔디밭, 풀이 있고, 들뜬에서 제일 크게 혼자 서 있다. 소원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자기를 누가 가꿔주는 것이다. 먼저 그린 사람은 7세의 팔을 벌리고 웃고 있는 여아로 소원은 항상 행복한 것이다. 필요한 것은 인형 같은 장난감이다. 나중에 잘 자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그린 사람은 “남자는 잘못 그린다.”며 그리는데 30세의 남자어른이다. 형식적인 관계의 사람은 많으나 친한 사람은 별로 없다. 소원은 안정적인 삶이다. 두 번째, SCT의 문항 중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항만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 슬프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조금 힘들다.", "아버지와 나는 불편하다.",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평소와 다를 없다.", "내가 어려진다면 마음껏 어리광을 피우고 싶다.",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던 일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 부모님을 실망시켰을 때.", "원하던 일이 잘 안되었을 때 자책하는 편이다."로 응답한다. 세 번째, KFD는 집 안이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맨 왼편 칸의 언니는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중앙 칸은 내담자와 남동생이 TV를 보고, 오른편 칸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일을 하신다. 아버지는 오른편 집 밖에서 뭔가를 고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KSD는 어느 교수님의 수업시간이다.

사전 심리검사에 내담자의 타인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드러나 있다(Kenkyukai, 2005; D. Kim, M. Kong, & O. Choi, 2002; M. Shin, et al., 2002). 먼저, HTP는 내담자가 안정감을 중시해 딱딱해 보인다. 집은 문고리가 없는 문이고 분위기가 어둡다. 나무의 소원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는 것이고, 누가 가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SCT와 가족화에서 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보여지고, 내담자의 정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2. 모래놀이치료 과정

총 31회기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분석심리학과 모래놀이치료 문헌의 관점에서 내용 주제의 전환에 맞춰 상담초기, 상담중기, 상담말기로 구분한다. 모래놀이치료 과정은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와 여성성의 회복과 관련된 모래상자의 부분과 내담자의 언어 등 관련사항만을 제시한다. 치료회기 전체의 모래상자를 <Appendix 2>에 제시한다.

1) 상담초기: 허전한 마음 표현

상담초기는 1~7회기(허전한 마음 표현)이다. 1회기는 "눈 오는 날"로 이글루, 크리스마스트리와 눈이 쌓인 집을 놓고 "모래상자가 허전한 것 같다, 나는 중앙의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한다. 2회기의 "우리집"에서는 "모래상자가 너무 넓은 것 같다."며 집안 내부를 꾸민다. 오른편 상단이 나의 방으로 내 방만 꾸미고 싶었는데 모래상자가 넓어서 거실도 꾸몄다. 모래상자가 "허전하다." 어릴 때 아버지는 내가 겹다고 놀렸다. 나는 착한 척을 많이 하는데 착한 동아리 언니에게는 좋아서 좀 함부로 대한다. 나는 추구하는 기준이 높다.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폭력적이고 부정적이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신데렐라가 답답하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 주어 남달라 보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남들이 나를 착하다고 하는데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 주어서인 것 같다. 남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쁜 것 같다. 동아리에서

남학생들도 내가 옳은 말만 한다고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말이 싫다. 정말 친한 사람이 몇 명 없다. 3회기는 "숲"을 꾸미고 친구들로 인한 섭섭함을 이야기하며 사람 모습에 실망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에 대해 실망한다고 한다. 사람을 대하기가 다 어렵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언니를 편애했다. 어머니는 언니에게 못하는 집안 이야기를 나에게 해 언니가 모르는 집안일을 알아 나는 억울할 때도 있다. 나는 많은 것을 안고 사는 것 같다. 4회기는 "옛날 동네"로 4개의 향아리에는 된장, 고추장, 김치가 있고, 짬신은 나의 것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계가 있는 것 같다고들 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면 다니는 교회로 도망을 갔는데 이 때 도와준 목사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남들이 내가 어떻다고 말을 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나도 내가 어떤지 몰라 남들이 나를 단정 짓는 것이 싫다. 5회기는 "과일 바구니"를 꾸민다. 나는 어릴 때 몹시 허약했다. 이제는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하는 데 혼자 사는 것이 무서워 찬송가를 틀어 놓고 잔다. 6회기는 "바쁜 사람들"로 모래상자의 사람들 중에 나는 없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사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나도 요즘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 같다. 나는 진정한 사람 한명만 만나고 싶다. 7회기는 "구름"으로 모래상자 전체가 하늘이고 웃는 모습의 구름 세 조각이 있다. 하늘을 보았으면 좋겠어서 만든 것이다. 하늘이 반가워서 나를 보고 웃고 있다.

2) 상담중기: 진정한 나를 찾기

상담중기는 8~27회기(진정한 나를 찾기)이다. 상담중기를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상담중기 I는 8~20회기(나의 모습확인)이고, 상담중기 II는 21~27회기(서로 다른 삶에 대한 인정)이다. 상담중기 I의 8회기 모래상자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큰 거울들 앞에 내담자 나이의 검은 작은 여아가 구름 모양의 것 위에 올라서서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거울을 보고 있다. 거울이 크면 많이 보여 줄 것 같다. 나의 주변을 다 보여주니 큰 거울이 좋다. 지난주에 나는 생일 축하를 친구들에게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 줄 것이 부담이다. 1학년 때 어울렸던 애들이 군대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 나만 학교에 있어 내가 이들의 소식통이다. 9회기의 "특이한 사람들"로 사람이니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 모래상자의 원시인이 "나"와 비슷하다. 군대에 간 친구가 오면 다른 애들이랑 만나기로 했다. 10회기에는 "오늘은 할 것이 없다."며 모래를 만지며 이야기를 한다. 교회 성가대원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른들이 있어 반주자이지만 주말 회식자리에 가지 않았다. 전화통화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OO"라고 나를 칭하면 어색하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정말 많이 변했다. 아버지가 아파서 어머니를 힘들게 할 때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11회기에는 모래상자에 “화단”을 꾸미고 나무토막에 앉아서 사랑, 지낸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힘들어 하면서 아버지와 화해하기는 싫은 것도 있다. 이대로 용서하는 것이 싫기도 하다. 친조부도 술을 많이 드시고 조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대장이었고 서울로 가출도 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 언니는 도망가고 나는 아버지를 말리다 얻어맞기도 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화를 냈고 다음날은 미안해했다. 젊어서는 밖에서 행패를 부렸다. 어머니는 신경증으로 위염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 지금도 아버지가 1년에 한두 번은 이런 행동을 한다. 외조부도 술을 좋아했고 외조모를 때렸다. 내담자는 방학 중 치료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힘들고 아픔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다고 한다. 아버지의 아픔을 보게 되어 방학에 아버지랑 있는 것이 힘들 것 같지 않다고 한다.

겨울방학으로 2달 정도 쉬고 이루어진 12회기에는 모래를 만지며 이야기를 한다. 설날에 아버지가 화를 냈고 아버지랑 언니가 싸웠는데 언니는 짐을 싸들고 나의 거처로 오게 되었다. 어머니는 언니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버지는 나를 고등학교 때부터 예뻐했다. 13회기에는 “막 꺾은 꽃”을 꾸미고, 아버지가 화가 나 교회에 안 간다, 부모님이 얘기 같다며 부모님께 기쁠까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언니는 직장 같은 곳에서 어른들과 잘 못 지내는데, “왜 어른 같지도 않은 어른에게 잘해야 하나.”고 한다. 언니는 애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어른들이 언니를 못 마땅해 한다. 14회기는 모래상자에 “바쁜 자동차”를 꾸미고 오토바이를 놓는다. 재미있게 사는 어떤 사람이 놀러 가며 오토바이를 놓고 갔다. 오토바이는 자유로울 것 같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모래상자의 자동차 행렬에 끼어야 할 것 같다. 이제 4학년이 되니 동아리의 부대표가 부담이 된다. 15회기의 “모르겠다.”에서는 세 인형 애들이 식물을 하나씩 키운다. 이것을 키우는 것이 이 애들의 일이다. 서로 만족하며 잘 지낸다. 지금 상태는 상담을 하면서 힘이 생겼다고 보다 더 감정적일 때가 있다. 감당이 안 되어 울 때도 있는데 어제도 울었다.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화를 풀어 교회에 나간다. 나는 성격이 예민해 짜증을 많이 낸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 나는 죄송한 마음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화가 풀어진다면 아버지가 밋고 그러면서 불쌍하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나를 모르겠다. 16회기는 “어디로 갈까?”로 그냥 어딘가를 가는 배다. 나와 치료자를 비롯해 3~4명이 탔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넓은 바다인데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다.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고 날씨는 어둡고

흐리다. 파도가 좀 있으나 건널 만하다. 배는 편안한 곳으로 간다. 어두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아는 얼굴이 있어 안심이다. 17회기에는 윙크하는 요정을 하나 놓는다. 요즘 분홍색이 예쁘다. 요정이 혼자 즐거워하고 있다. 요술봉으로 다 할 수 있다. 나에게 요술봉이 있다면 주변, 가족, 친척 다 바꾸고 싶다. 나도 항상 즐거운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 다른 애들이 핑크색을 좋아해 나는 핑크색을 싫어했다. 그런데 이제 핑크색이 좋아졌다. 상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제는 절망적인 느낌도 와 살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다. 18회기에는 모래상자에 “내 모습”을 꾸미고 둘 다 어릴 때 자기의 모습이라고 한다. 남동생을 내가 거의 키웠다. 모래상자는 나의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 때는 재미가 없었다. 어릴 때 집에서 힘들었으나 교회에서는 기쁘고 행복했다. 지금은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언니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의 사장 아들과 사귀다. 언니는 철딱서니가 없다. 19회기는 “내가 피아노를 쳐도 될까?”인데, 더 어린애도 있지만 7세 정도 되는 애들을 내가 돌본다. 부모는 없고 내가 엄마 같다. 내가 좋아서 데려온 애들이다.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애들이 시끄러워 할 것 같다. 나는 애들이 말썽부릴까 봐 피아노를 못 친다. 언니는 남자 친구와 깊은 스킨십도 한 것 같다. 나도 교회 강도사를 소개 받은 적이 있는데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며 거절했었다. 20회기에는 깊은 산속이라며 “착한 마귀할멈”을 꾸미고, 모래상자의 달마시언은 장난꾸러기이고, 토끼는 새침하며, 돼지는 둔하고, 굴속의 표범은 예민하다고 한다. 마녀들은 같은 직장사람들로 산에 놀러 왔고 서로 친구들인데 수다를 떠다. 이들은 서로 오해 받았고 나쁜 짓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호탕하게 나눈다. 언니 남자친구는 생긴 것이 아버지랑 닮았고 잘 빠지는 것을 보니 심성이 여린 것 같다.

상담중기 II는 21~27회기(서로 다른 삶에 대한 인정)이다. 21회기는 “어디가 아프냐?”인데 이들은 선생님과 학생으로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 왔고 선생님이 자신을 잘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모래상자의 남아가 이 선생님을 믿고 있다. 울면서 언니랑 싸웠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나의 편을 들다가 나중에는 나더러 언니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 부모를 너무 믿었고, 언니랑 함께 있고 싶은데 언니는 그 사람하고 있다. 22회기는 “숲 속”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해 마일로 가는 길이다. 모래상자의 할아버지가 “나”이다. 가만히 앉아 물고기가 오기를 바라는 모습이 좋지 않다. 좋은 모습은 망을 들고 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이어갈 자신이 없고 관계를 좋게 맺어 본 적이 없다. 요즘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 그냥 고민만 한다. 23회기에는 “신비한 마을”로 모래상자의 앞부분에 놓은 것들은 다른 것들이 밖에서 못 들어오게 뒷마당을 지킨다. 사람들이 못 찾아오는 곳이다. 좋은 것은 행복, 평화, 조용하고 즐거운 것

이고, 나쁜 것은 불안정한 것이다.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영생을 얻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안 좋다. 24회기는 “혼자 있고 싶다.”로 기사 네 명도 싫어하는 모습의 “나”이다. 다 사라져 혼자 있고 싶다. 이 구아나 같은 도마뱀이 언니의 남자친구로 “나”인 중앙의 여인이 일어나면 이것을 없애버리고 싶다.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챙겨 주는 것이 싫다. 언니 남자친구를 부모와 교회 식구들이 좋아했다. 나는 남동생이 여자 친구를 데려와 결혼한다고 하면 괴롭힐 것 같다. 언니랑 있고 싶은데 언니가 내 맘을 몰라준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있고 싶다. 아침까지 속상하고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죽었다.”며 모래상자의 도마뱀들을 다 뒤집는다.

여름방학으로 2개월 정도 쉬고 다시 진행된 25회기에서 “고릴라”를 꾸민다. 꽃밭에 고릴라가 있다. 고릴라도 자기가 왜 있는지 모른다. 고릴라는 그냥 힘들고 여기 있기 싫어하고 산에 가고 싶어 한다. 고릴라가 “나”인데 늙고 피곤해 보인다. 여름방학에 식구들을 돌보는데 지쳤다. 언니는 키워준다는 여자목사님이 사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언니는 그 목사님의 말을 따라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 목사님이 언니에게 무슨 비전을 주었는지 언니가 달라졌다. 부모님이 다시 교회에 안 나가신다. 아버지는 대학원에 가지 말라고 한다. 마음이 우울하다. 가족들하고 있으면 힘들다. 26회기에는 “서로 다른 시간”을 꾸민다. 5개의 섬 모양이다. 내가 중심이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이다. 물인데 엄청 큰 거다, 바다로 가는 엄청 큰 바닷물로 물이 계속 흐른다. 물은 다 할 수 있다. 시계들이 놓인 곳은 멈춰 있다. 물은 크고 힘차게 흘러가고 있다. 사람이 다 같이 살고 있어도 각자 다른 삶이 있고, 생각도 다르고, 같이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없는 거다. 나 자신은 모래상자 중앙에 살고 있다. 아버지가 언니에게 어머니 몰래 용돈을 보내준다. 27회기에는 “와 먹을 것이 많다.”를 꾸민다. 내담자는 먹었다며 원숭이 소품이 4개 밖에 없어 자신을 빼고 놓는다.

3) 상담말기: 새로운 세상 맞이하기

상담말기는 28~31회기(새로운 세상 맞이하기)이다. 28회기는 “새로운 세상”으로 배는 가보려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낸다. 나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삶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도 생겼다. “상담하면서 얻은 것이 이거구나.” 졸업 후 1년간 종교단체의 간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불안 때문이 아니라 벽차서 두근거린다. “남이 어떻게 봐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통해 얻은 것이 이것이다. 이를 더 확고히 할 것이다. 나는 배 안에 있고 사람들에게로 가고 있어 내가 만날 사람들인 것 같다. 이제는 하

나님께 맡겨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29회기에는 “아직 연주 못하는 악기들”로 나중에 천천히 살면서 해 보고 싶은 악기들이다. 언니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내가 종교단체의 간사 일을 함으로써 가족들이 나를 덜 의지하고 자기 역할을 찾아 갈 것 같다. 주변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이제 신경이 안 쓰이고 편하다. 30회기에는 모래를 퍼내고 “동행”을 꾸민다. 양 옆이 바다이고, 다리 하나가 놓여 있다. 나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시작점부터 나 혼자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나 배우자와 나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두 남녀가 앞으로 갈 길을 보고 있다. 배가 가까이 오면 탈 것이다. 날씨가 좋아 보이고 순항할 것 같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부모님에게 말을 하자 어머니는 실망했고, 아버지는 잘됐다며 기쁘게 생각했다. 정말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만 하는 것 같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잘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살아가면서 변했다. 배가 다리까지 오면 탄다. 여자상은 “나”이고, 남자상은 하나님이다. 31회기(최종회기)는 “기다림”이다. 여기 누군가 온다. 누가 기다리다가 잠깐 어디 갔는데 그게 “나”이다. 세심하게 챙겨주는 복학한 동아리 남학생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좋아지고 나서는 어떻게 나를 이 사람에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내가 진로를 이야기 하자 이 사람은 평생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겠다고 한다.

3. 사후 심리검사

사후 HTP, KFD와 KSD는 <Appendix 1>에 제시한다. 사후 심리검사로 첫째, HTP의 집은 입체적인데 커튼은 벌려 묶여져 있고, 문은 옆으로 여는 미닫이문이며,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쳐 분위기가 활기차다. 나중에 애들이 다 커서 떠나고 부모가 산다. 나무는 사과나무로 한 50세이다. 살아있고 튼튼하다. 동산 가운데 들판에 혼자 있다. 소원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들판만 있으면 되어 필요한 것은 없다. 처음 그린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여자로 친구를 만나러 간다. 친구들과 뭘 하든지 좋아한다. 두 번째 그린 사람은 20대 사무직 일을 하는 직장인이다. 친구가 많을 것 같다. 소원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SCT 문항 중 사전검사와 비교를 위해 사전과 같은 문항만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 내가 이상한 지 다시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즐겁다.”, “아버지와 나는 닮았다.”,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조금은 내 빈자리를 느끼고 나를 생각한다.”, “내가 어려진다면 언니와 경쟁하지 않고 더 잘 해 주고 싶다.”,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던 일은 내 진로를 확실히 정했을 때.”,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 엄마가 절망적인 말을 쏟아 낼 때.”, “원하던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로 응답한다. 세 번째, KFD는 언니는 혼자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부모님, 남동생과 내담자는 TV를 보고 있는데 나는 언니 쪽을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KSD는 학과 친구와 아는 척을 하는 뒷모습의 나로 서로 친하지 않은데 반가운 척 해 어색해 한다.

사후 심리검사를 종합해 보면, 먼저 집의 분위기가 활기차졌고 언니를 뺀 나머지 식구들은 한 공간에 있다. 또한 SCT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커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삶에 보다 긍정적으로 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말에서 치료 시작 당시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의 주요 증상인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대상은 치료 시작 당시 대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내담자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신혼 때부터 음주와 함께 폭력을 행사해 왔고 내담자는 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알게 되었다. 중학교 때부터는 아버지의 폭력이 행해지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회 목사님 부부에게로 피하게 했다. 내담자는 어른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편해지고 싶다는 모래놀이치료를 의뢰하였다.

Jung은 부모가 살아보지 않았던 삶(unlived life)은 자녀가 무의식적으로 지고 가는 짐이 된다고 믿었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불협화음과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을 내사한다고 한다(O'Conner & Braverman, 2011). 이처럼 분석심리학적으로 내담자는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건전한 아니무스와 접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내담자 내부의 남성 이미지가 많이 부정적인 면으로 치우쳐져 있어 부정적인 아니무스 지배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아버지로 인해 부정적인 심상들은 충분히 좋은 부모가 아닌 것으로 내담자에게 내면화되어 경직된 자아 방어를 형성해 지나치게 과민하고 자기 방어적이어서 성격적으로 딱딱하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방어적이다(O'Conner & Braverman, 2011). 그리고 항상 불안해하고, 여성으로서의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에도 손상을 입었다. 이처럼 내담자는 부정적인 부정상의 지배로 긍정적인 아니무스의 특성인 진취적이고 모험적이며 논리와 이성적인 부분이 약하고, 부정적인 아니무스가 여성성을 위협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B. Rhi, 2001).

본 논의에서는 내담자가 모래놀이치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여성성을 회복하게 되는지 분석심리학과 모래놀이치료 문헌의 관점에서 탐

색해 본다. 먼저, 상담초기는 1~7회기(허전한 마음 표현)이다. 1회기는 이글루, 눈 덮인 집들이 차가워 보이고 사람이 없어 쓸쓸해 보인다. 이런 모습이 내담자와 관련된 문제로 내담자에게 계발되어야 할 부분이다. 보통 모래놀이치료 첫 상자에는 내담자의 콤플렉스나 무의식의 문제가 드러나듯이(Hoeberichts, 2003), 내담자는 정신적으로 여성으로 꽃피우지 못한 얼음처럼 얼어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Y. Lee(2010)의 주장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로 인해 내담자는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가지고 여성성이 전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부정되어진 모습 같다. 내담자는 내적인 이성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아니무스와 관계가 어렵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계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내담자는 불안정하고, 남자친구도 가볍게 사귀는 언니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2회기는 행한 집안 일부만을 꾸몄는데, 집은 여성적인 면을 의미해(Bradway, 2001), 이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 자신의 여성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은 착한 척을 많이 한다고 하거나 추구하는 기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내담자가 폭력가정에서 자라 거짓 자기를 가지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내담자는 책임감이 아주 강해 언니와 부모까지 책임지려고 해 부모들의 과제에 지나치게 억눌려 있어 보인다. 그러나 왼편 상단에 2개의 등이 있는데, 불빛은 현실과의 직면을 의미해(Cooper, 1978), 의식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회기의 “숲” 역시 쓸쓸한데, 이런 인적이 없는 세계가 내담자의 내면세계인 것 같다. 숲은 찾아내야 할 비밀과 마주 대해야만 할 어두운 감정과 기억이 들어 있는 무의식의 상징인데(Ackroyd, 1997; Fontana, 1998), 모래상자 앞부분에 잔디들이 넓게 있어 내담자의 의식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내담자가 눈치가 빨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는 부분도 아버지의 폭력으로 위협한 상황에 대해 늘 추측을 해야 해서 인 것 같다. 4회기의 짚신은 옛날에 손으로 만들어 개인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것인데, 짚신을 놓아 이제 내담자가 좀더 깊은 내면의 작업을 위해 모래상자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또한 향아리 4개가 놓여 있는데 향아리는 담는 것으로 여성성을 의미하고(Cooper, 1978), 숫자 4 역시 여성성을 의미해(Eastwood, 2006) 여성성과 관련된 작업을 암시하는 듯하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남이 그 자신의 생각을 갖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타인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갖게 안하는 듯 하다. 이는 내담자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위협한 상황에서 추측을 해야 해 두려움이 컸고 이러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공간을 갖기 어려워 스스로도 여유가 없어서인 것 같다. 5회기의 과일 광주리가 놓인 모래상자는 만다라 형태이다. 이는 실체가 아닌 공허,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만다라를 꾸민 것 같다(Ammann,

2010). 그러나 Kalff는 만다라를 자기(the Self) 상으로 보며 건강한 자아발달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해(Grubbs, 2007) 희망적이다. 6회기에는 갑자기 많은 사람이 등장했으나 사람들 간에 교류는 없고 집들은 방어하는 모습 같다. 이는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지닌 여성의 경직된 자기방어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7회기는 구름인데 사람표정으로 웃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쩡그린 듯 하기도 하다. 하늘을 보고 싶어 만들었고 하늘이 내담자를 보고 반가워 웃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내담자의 페르조나 같다. 하늘은 지상에 사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초월, 힘, 신성, 영원성을 의미하고(Chevalier & Gheerbrant, 1997), 일반적으로 하늘의 신은 여성이다(Cooper, 1978). 이는 내담자가 이상적인 여성성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K. Kim, 2009). 이처럼 상담초기에는 폭력가정에서 자라서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로 얼어있는 여성성과 함께 방어적인 내담자의 내면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내담자는 관계의 어려움을 허전함, 좌절, 답답함, 행복하지 않음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를 차갑고 행한 느낌을 주거나 사람들 간에 교류가 없는 모래상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정 콤플렉스로 내담자는 착해야 하고, 남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등의 페르조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도 보여준다(K. Kim, 2009).

또한 상담초기에 내담자의 언어에서 역시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의 증후들을 볼 수 있다(Kast, 1997). 이를 열거해보면, “나는 착한 척을 많이 한다, 남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쁜 것 같다, 나는 추구하는 기준이 높다, 내가 옳은 말만해 남학생들도 무섭다고 한다, 나는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다, 눈치가 빨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계가 있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등이다. 이로써 내담자가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 페르조나와 부정적인 아니무스에 사로잡혀 있음을 상담초기에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상담중기는 8~27회기(진정한 나를 찾기)이다. 상담중기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상담중기 I는 8~20회기(나의 모습의 확인)이다. 8회기에 5개의 거울을 놓았는데 이제 내담자는 거울로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 이 모래상자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테마의 상자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고민한다. 이제 자기 문제와 겨룰 준비가 된 것이다. 검은 구름 같아 보이는 소품 위에 검은 소녀가 서 있는데 이는 내담자의 그림자 같다. 거울은 숙고하게 해주고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해준다(Bradway, 2001). 검은 색은 연금술에서 가공하지 않은 제 1원질(prima materia)로 의식화 작업의 기본 물질을 의미한다(Bradway, 2001). 9회기 “특이한 사람”에서는 거지, 외눈박이 사람, 심슨 등 소품들끼리 서로 관계가 없는 모래상자를 꾸미고 자신이 모래상자 중앙에 놓인 원시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담자는 미발달되고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더 보고 있음

을 나타내 준다. 이는 또한 11회기에 모래상자의 화단은 전체적으로 힘은 있는데 움직이는 에너지가 없어 보이는 부분과 결여된 점이 연결된다. 나무는 보호, 안식처 등 여성의 원리를 상징하고(Cooper, 1978), 오른편 하단은 여성성과 관련된 자리여서(Foks-Appelman, 2011), 이곳에 잘린 나무들이 내담자의 온전하지 못한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 같다. 12회기에는 방학기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아져 침입적이고 파괴적인 아니무스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3회기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버지의 영향일지 모르겠으나 모래상자에 꽃이 활짝 피었다. 14회기의 많은 자동차들은 에너지이고, 가는 수단인데(Cunningham, 2009),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 자유로울 것 같으며 놓은 오토바이로 4학년 동아리 임원으로 부담이 된 마음을 질주하고 싶은 자유로 표현하고 있다. 15회기에는 외국 인형을 놓으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나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는 낯선 외국 인형들과 연결되는 언어 표현이다. 16회기에는 내담자가 치료자 등 아는 사람들과 타고 가는 배를 놓고 편안한 곳에 가는 여정을 표현한다. 17회기에는 링크하는 요정을 하나 놓으며 “요즘 분홍색이 예쁘다, 핑크색을 싫어했는데 핑크색이 좋아졌다.”고 한다. 18회기에는 남동생을 업고 있다고 한다. 내담자도 아이인데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다. 19회기에는 생활 속에서 언니와 갈등이 깊어진다. 모래상자의 아이들은 내담자가 돌보는 아이들로 모성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다. 애들 때문에 피아노를 못친다고 하는데 이는 내담자가 가족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인식해 이를 자기 책임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즉, 18과 19회기에는 집의 일에 매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0회기에는 자신감을 잃어 버렸다는 이메일을 치료자에게 보낸다. 여기서 자신감을 잃어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이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안다는 것으로 이는 내담자가 진정한 자기 모습을 인식해 가고 있는 것의 표현일 수 있다. 모래상자에 마녀 3명이 등장하는데 마녀는 여성, 내담자의 충동에서 좀더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고(Chevalier & Gheerbrant, 1997), 동물들은 본능적인 에너지와 충동을 나타내는데(Brock, 2007), 내담자는 달마시언은 장난꾸러기고, 토끼는 새침하고, 돼지는 둔하고, 표범은 예민하다고 한다. 이들 또한 내담자 자신의 여러 모습에 대한 자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담중기 I에서는 거울을 모래상자에 놓으며 자신의 여러 면을 보기 시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이런 모습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검은 소녀나 원시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내담자는 겨울방학으로 집에 가서는 아버지도 힘들고 아픔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도 넓어진다. 모래상자의 외국 인형 셋이 식물을 기른다면 가꾸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즘

분홍색이 예쁘고 핑크색이 좋아졌다고 하며, 여성적인 부분과 여성적인 색에 수용적이 되어 내담자의 여성성에 변화가 있음을 드러낸다.

상담중기 II는 21~27회기(서로 다른 삶에 대한 인정)이다. 21회기 모래상자의 치료 장면은 내담자의 치유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회기의 난장이는 열등한 남성성을 시사하고(Johnson, 1999),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진정한 자기를 상징하기도 하는데(Ackroyd, 1997), 이는 내담자는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이어갈 자신이 없고 관계를 좋게 맺어본 적이 없다고 자탄하는 말과 연결된다. 또한 땅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강태공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고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라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23회기는 “지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데 지키는 것이 여성성의 특성 중 하나이다. 남성성은 “나가는 것”이다(S. Kim, 2001a). 24회기에는 못 마땅한 언니의 남자친구를 무찌르고 싶어 하는데 내담자는 다시 자기와 성질이 다른 것에 지나치게 방어적임을 보여준다. 25회기에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내담자는 반복적으로 미발달된 원시인이나 고릴라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26회기의 모래상자에 5개의 섬모양을 꾸미고 “사람이 다 같이 살고 있어도 각자 다른 삶이 있고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 회기에서 내담자는 다른 사람의 삶과 생각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담자는 타인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 각자 다른 삶이 있고 생각도 다름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27회기 모래상자의 원숭이들이 내담자의 가족이다. 원숭이는 변화의 힘을 상징하기도 해(Cooper, 1978), 이로써 내담자의 내면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담중기 II에서는 치료 장면을 꾸미며 치유가 진전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그러다가 신비한 마을을 지키는 여성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내담자의 내면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결국 사람이 다 같이 살고 있어도 각자 다른 삶이 있고 생각도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

세 번째, 상담말기는 28~31회기(새로운 세상 맞이하기)이다. 28회기 “새로운 세상”에서는 내담자는 좀 대범해졌고 갑자기 모래상자의 분위기가 바뀐다. 사람들에게 가는 내담자가 탄 배는 여성성을 상징한다(Ackroyd, 1997).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을 정하고 “남이 어떻게 봐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담을 통해 얻은 것이 이것이라는 말을 한다. 30회기에는 모래상자에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다. 사이가 나쁘던 세계와 연결한 것이고, 바다의 배가 어떻게 육지로 오는지 방향성도 의식한다. 여기서 여자는 내담자이고 남자는 하나님인데 신은 의미, 지혜, 에너지의 원천이면서, 내담자의 아니무스를 의미하고, 내담자의 진정

한 자기, 온전성을 의미하여 이들이 동행을 한다는 말은 합일, 전체성, 온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Ackroyd, 1997). 내담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을 하려고 결정하고 편안해 한다. 이제 내담자는 진정한 여성의 수용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 같다(Y. Lee, 2010). 31회기에는 남성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이를 처음으로 표현한다. 내담자는 그동안 억압했던 세계에 점점 눈을 뜨며 모래놀이치료는 종료된다. 이처럼 상담말기에는 졸업 후 어떤 일을 할지 결정을 하고 “남이 어떻게 봐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의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편해졌다.”고 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했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선택했다.”며 행복해 한다. 남녀의 동행으로 내담자 인격이 전체성, 온전성에 이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Grubbs(2005)의 모래상자 분석에서 “관계의 구조” 차원은 대인 간 조직과 상호작용 양상을 보는데, 이는 내담자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느낌을 평가한다. 이런 관계의 구조측면에서 본 연구 내담자의 모래상자를 보면, 5회기까지의 모래상자에 전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6회기에 사람들이 등장했으나 “바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표현하듯이 바쁜 사람들로 서로 교류는 없어 보인다. 8회기에는 검은 소녀가 커다란 5개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이어지는 9회기에는 거지, 원시인, 외눈박이 사람 등 뭔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 다시 전혀 사람이 등장하지 않다가 15회기에 고전 의상을 입은 경직되어 보이는 러시아 인형 세 명이 등장한다. 18회기는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인 교복 입은 소녀와 남동생을 업고 있는 소녀가 등장한다. 19회기는 내담자가 돌봐야 하는 영아들이 등장하고, 20회기는 마귀할멈 세 명이 등장한다. 21회기에는 간호사 같은 여자 선생님과 남아가 있다. 22회기는 숲 속에 세 명의 난장이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라고 하는 강태공 할아버지가 있다. 24회기는 모래상자 중앙에 옆으로 누워 있는 자신인 여인과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있다. 28회기에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편안한 모습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30회기에는 나란히 앉은 남녀상이 앞으로 갈 길을 보고 있고 배가 가까이 오면 탄다고 한다. 이처럼 내담자는 상담초기에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드러내다가, 상담중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켜 자신의 결여된 점을 자각하고, 상담말기에는 편안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해졌음을 보여준다.

부정 콤플렉스의 해소와 치유는 여성 내면의 자연, 동물적 본성과 그림자로 남아 있던 여성성, 여성원리를 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K. Kim, 2009). 이처럼 내담자 안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치유되고 새로

워진 여성성과 남성성이 내담자의 인격 안에서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내담자는 전체성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내담자는 모래놀이치료로 부정적인 부정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Y. Lee, 2010).

요약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신혼시절부터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가정에서 성장한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의 모래놀이치료 사례를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 관점에서 다루었다. 어른 및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치료목표로 해서, 상담초기에는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표현하고 움직임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얼어 있는 여성성의 문제를 표현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 증후들을 보여 준다. 상담중기에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데 먼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해 본다. 그다음 내담자의 여성성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삶과 생각이 있다는 자각을 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작업을 한다. 상담말기에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데 이런 일련의 심리적인 여정을 통해 내담자는 정체감이 보다 확립되고, 과민하고 자기 방어적이던 대인관계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진다. 이처럼 자유롭게 보호된 공간에서 자기치유능력을 활성화 시키는(Kalff, 2003)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폭력가정에서 성장하여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지닌 내담자가 그동안 억압했던 자기 성격의 그림자적인 요소들을 통합하고, 자기다움의 여성성을 회복하여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에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졸업 후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어 모래놀이치료가 내담자에게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은 사후 심리검사에서도 표현되어 집의 분위기가 활기차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겁다.”고 하며, 밝아졌고, 언니를 뻘 가족이 함께 있게 되었음을 표현한다.

본 연구는 한 사례만을 탐색하여 앞으로 폭력가정 자녀의 정신역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객관적인 과학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인 것처럼(Toja, 2011), 모래놀이치료는 내담자의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심리치료를 하므로 무의식의 작업을 객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투사검사 외에 내담자의 심리사회적인 변화를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심층심리학인 Jung 학파의 정신과 의사로 수십 년간 내담자를 치료해온 전문가의 수퍼비전에 따라 본 연구 내담자의 치료 이슈를 정하고 이런 이슈의 관점에서 내담자 내면의 여정을 탐색한 것은 의미로운 일이다. 즉, 본 연구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여자 대학생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치며 부정적인 부정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연스런 여성

성을 회복하게 되는지를 분석심리학과 모래놀이치료 문헌의 관점에서 탐색하여 폭력가정 자녀의 정신역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제시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ckroyd, E. (1997). *A dictionary of dream symbols*. (B. J. Kim, Trans.). Seoul: Korean psychotherapy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Ammann, R. (2010). The inner beauty of Hakoniwa: The inner beauty of sandplay therapy.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9(2), 7-19.
- Boik, B. L., & Goodwin, E. A. (2000). *Sandplay therapy: A step-by-step manual for psychotherapists of diverse orientations*.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Bradway, K. (2001). Symbol dictionary: Symbolic meanings of sandplay images.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0(1), 9-110.
- Brock, M. A. (2007). A rite of passage.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6(1), 87-107.
- Chang, H. (2003).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An exploratory analysis focusing on children living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5, 255-281.
- Chevalier, J., & Gheerbrant A. (1997).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London: Penguin books.
- Cho, M. (2012). A study on the harmful effect of domestic violence according to youth's gende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1), 1-19.
- Choi, J. W., & Kim, H. J. (2011). Domestic violence affects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t Science*, 18(1), 73-103.
-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New York, NY: Thames & Hudson.
- Cunningham, L. (2009). Approach to the numinous in sandplay: A bridge to creativity.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8(2), 45-67.
- Eastwood, P. S. (2006). *Nine windows to wholeness: Exploring numbers in sandplay therapy*. (J. S. Jung, B. A,

- Kim, & S. Y. Jung, Trans.). Seoul :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Foks-Appelman, T. (2011). Finding the path: The case of Anita. *Journal of Sandplay Therapy*, 20(1), 135-146
- Fontana, D. (1998). *The secret language of symbols: A visual key to symbols and their meanings*. (S. J. Choi Trans.). Seoul: Munhakdongne.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Grubbs, G. (2005). *The sandplay categorical checklist for sandplay analysis*. Woodinville, WA: Rubedo Publications.
- Grubbs, G. (2007). The self and its evolving heaven and hell manifestations.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6(2), 75-86.
- Hoeberichts, I. (2003). Snakes: Separation and individuation.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2(1), 77-88.
- Hong, S. H., & Kim, H.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level of domestic violence perceived by children, anxiety, and society adjustment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5(1), 75-87.
- Johnson, D. M. (1999). Fairy tale symbolism applied to sandplay. *Journal of Sandplay Therapy*, 8(2), 65-86.
- Kalff, D. M. (2003).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Cloverdale, CA: Temenos press.
- Kast, V. (1997). *Father-daughter, mother-son: Freeing ourselves from the complexes that bind us*. Rockport, MA: Element.
- Kenkyukai, K. (2005). *The interpretation of drawing test in clinic*. (J. S. Lee & S. Y. Hong Trans.). Seoul: Hana Medical Publishing Co.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Kim, D. Y., Kong, M., & Choi, O. S. (2002). *The psychological diagnosis of HTP and KHTP*. Seoul: Dongah Moonwhasa.
- Kim, H.-M., Lee, S.-J., Seo, H.-J., Choi, E.-J., Kim, E.-J., & Moon, S.-H. (2007). The effects of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18(1), 53-77.
- Kim, J.-Y., Cho, H.-L., & Yang, H.-W. (2003). Analysis of the problems of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and clinical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5, 27-54.
- Kim, J. Y., Kim, H. S., & Yang, H. (2006). The problem of the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and social welfare counterplan. *Journal of Family Law*, 20(1), 83-119.
- Kim, K.-H. (2009). Father complex in women and the healing: Investigation with the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of three women. *Shim-song Yon-gu*, 24(1), 18-68.
- Kim, S. (2001a). *Analytical psychology and Christianity*. Seoul: Hakjisa.
- Kim, S. (2001b). The interpretation from analytical psychology viewpoints about Korean society and Simcheongjeon. *The Theory of Society*, 19, 258-286.
- Kim, Y. O., & Park, I. A. (2000). A study on types of domestic violence, their inter relationship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mental health.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5, 103-127.
- Kim, Y. S. (1996). The therapeutic implications of sandplay through psychotherapy of kindergartner.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2, 291-305.
- Lee, S. (2006).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on social resilience of adolescents exposed to family viol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2), 331-353.
- Lee, Y. (2010). Womans' father complex in fairy-tales: Focused on two Korean fairy-tales <Shimchung> and <Barli princess>. *Shim-song Yon-gu*, 25(1), 65-101.
- O'Conner, K. J., & Braverman, L. D. (2011). *Pla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Y. H. Song, S. H. Lee, & H. J. Kim Trans.). Seoul: Sigma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9).
- Rhi, B.-Y. (2001). *Anima and animus: The woman within man, the man within woman*. Seoul: Hangilsa.
- Shin, H.-S. (2000). A study on children from wife-battering families.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6(1), 67-85.
- Shin, M. S., Kim, S. K., Kim, Y. H., Kim, J. Y., Park, H. K., & Lee, H. L. (2002). *Assessment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 through drawings*. Seoul: Hakjisa.
- Sim, H.-O. (2011). A case study of a 5th grade girl from a divorced family recovering femininity through the sandplay therap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1), 55-65.
- Sim, H.-O. (2012).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for a boy from grand parents-grand children families showing internal and external behavior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7(2),

75-96.

Zoja, E. P. (2011). *Sandplay therapy in vulnerable communities: A Jungian approach*. NewYork: Routledge.

☐ 접수 일 : 2013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14년 02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4월 15일

<Appendix 1> Projective pre-test and post-test

House(Pre-test)

House(Post-test)

Tree(Pre-test)

Tree(Post-test)

Person 1(Pre-test)

Person 1(Post-test)

Person 2(Pre-test)

Person 2(Post-test)

KFD(Pre-test)

KFD(Post-test)

KSD(Pre-test)

KSD(Post-test)

<Appendix 2> Sandplay therapy sessions

- The initial phase of therapy:
The expression of feeling empty

1 session(A snowing day)

2 session(Our house)

3 session(A forest)

4 session(An old village)

5 session(A fruit basket)

6 session(Busy people)

7 session(Clouds)

- The intermediate phase: Finding authentic self
- The intermediate phase I: Discovery of myself

8 session(Untitled)

9 session(Peculiar people)

10 session(Untitled)

11 session(A flower bed)

12 session(Untitled)

13 session
(Flowers gathered just now)

23 session
(A mysterious village)

24 session
(I'd like to be alone)

14 session(Busy cars)

15 session(I don't know)

25 session(A gorilla)

26 session
(Different time each other)

16 session(Where to go?)

17 session(Untitled)

27 session
(Wow, so much food!)

18 session(My look)

19 session(Would you mind
playing the piano?)

• The final phase of therapy:
Welcoming a new world

28 session(A new world)

29 session(Musical instruments
not played yet)

20 session(Good witches)

- The intermediate phase II:
Acknowledging the different viewpoints of others

21 session(Are you sick?)

22 session
(The inside of woods)

30 session(Traveling together)

31 session(Waiting)